

학개 개관

1. 개요

학개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권면의 예언서입니다.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학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, 하나님의 임재, 언약,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합니다.

2. 저작 연대

- 주전 520 년, 다리오 왕 제 2 년 (학 1:1)에 활동했습니다.
 - 이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,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방해와 무관심으로 중단된 지 약 16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.
- 학개는 정확히 4 번의 예언을 단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전합니다. (1:1, 2:1, 2:10, 2:20)
-

3. 저자

- 학개(Haggai)는 이름의 뜻이 “축제의 사람” 또는 “절기의 사람”입니다.
 - 성경은 그의 출신이나 계보를 명시하지 않지만, 그는 포로기 이전을 기억하는 원로급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(학 2:3).
- 그의 말씀은 짧지만, 직설적이고 실천적이며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.
-

4. 기록 목적

- 성전 재건이 지연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자기 집만 꾸미며 하나님의 집은 방치하자,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우선순위의 회복과 헌신의 갱신을 촉구하십니다.
- 궁극적으로,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회복,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위한 길 준비의 의미를 가집니다.

5. 단락 구분

구분	본문
1:1-15	첫 번째 권면: 성전 재건을 미룬 백성을 향한 책망과 격려
→ 순종하여 공사를 시작함	
2:1-9	두 번째 메시지: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
→ 장차 임할 더 큰 영광의 약속	
2:10-19	세 번째 메시지: 성결과 복의 관계 설명
→ 성전 재건을 통해 복을 회복하심	
2:20-23	네 번째 메시지: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메시아적 약속
→ 그를 “도장 반지”로 삼겠다는 언약	

6. 중심 메시지

“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...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.” (학 2:9)

- 하나님은 백성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고,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회복하시며, 장차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궁극적 성전과 샬롬(평화)을 예고하십니다.

7. 신학적 이슈

① 성전 신학

- 학개서는 성전이 단지 건물 이상으로 **하나님의 임재, 언약, 구속 역사의 상징임**을 보여줍니다.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**그리스도의 몸, 교회, 성령의 전**으로 성취됩니다 (요 2:21, 고전 3:16).

② 순종과 회복

- 학개는 “너희 길을 살펴보라”는 반복을 통해 **우선순위의 문제, 불순종의 결과, 순종의 축복**을 연결합니다. →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**삶의 선택과 우선순위**에 드러납니다.

③ 스룹바벨과 메시아

-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며, 학개서는 그를 향해 “내 종, 도장 반지”라 칭함 (2:23). 이는 **메시아의 그림자**로서, 장차 오실 **예수 그리스도를 예표**합니다.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학개 해석

① 언약 신학과 성전의 연속성

- 개혁주의는 성전 재건이 **하나님의 언약 백성 회복의 중요한 행위**였음을 강조합니다.
- 그리고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**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성취**됩니다.

② 우선순위와 하나님 중심의 삶

- “각기 자기 집을 짓는 데만 힘쓸 때...” (1:9)는 **세속화된 신앙과 소비적 삶에 대한 경고**입니다. 개혁주의는 **하나님 중심의 삶과 전 인격적 순종**을 요구합니다.

③ 신자의 삶과 성화의 회복

- 학개는 성전을 통해 백성의 삶을 **정결하게 회복**시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 이는 개혁주의의 **성화 교리**, 즉 **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의 지속적 거룩함과 일맥상통**합니다.

④ 메시아적 성취

- 학개 2:6-9 에서 말하는 더 큰 영광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해석됩니다. → 개혁주의는 이를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예언 성취로 받아들입니다.